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5월 20일
(월요일)

강북신문 4면



강남연 의원(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자료를 둘러보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북구의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연장

강북구의회는 5월14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25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하기로 계획됐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강남연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안부래 전직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등 총 5명을 위촉

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강남연 대표 의원은 “강북구 예산의 1%만 절약해도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예산은 계획대로 징수 됐는지 등을 살펴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연장

예산의 1% 절약해도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 확보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25일 동안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강남연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안부래 전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

사 등 총 5명의 위원이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강남연 대표 의원은 “강북구 예산의 1%만 절약해도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예산은 계획대로 징수 됐는지 등을 살



▲강남연 대표위원

펴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사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구의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연장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14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달 25일부터 19일까지 25일 동안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한편, 결산검사에서는 강남연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안부래 전직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등 총 5명을 위촉해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



이다.

이날 강남연 대표 위원은 “강북구 예산의 1%만 절약해도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지 잘못

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않은지 세입예산은 계획대로 징수 됐는지 등을 살펴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연장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14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25일 동안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강남연 의원(왼쪽 사진)을 대표위원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안부래 전직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등 총 5명을 위촉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강남연 대표 위원은 “강북구 예산의 1%만 절약해도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지 세입예산은 계획대로 징수됐는지 등을 살펴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